

<독일문학과영화>

- 原作: 토마스 만 Thoms Mann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Der Tod in Venedig』 (1912)
- 루치노 비스콘티 L. Visconti 감독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Death in Venice』 (1971)

▶ 영화의 전개

- 영화의 첫 시퀀스는 물 위로 미끄러지는 새벽녘의 증기선 산의 아센바흐

→ 라타의자에 앉은 채 몸에 담요를 두르고 책을 읽고 있는 아센바흐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이런 외견은 고민에 빠져보이며 병약하면서도 초조하고 외로운 인상을 준다. 소설의 1,2장에 해당하는 아센바흐의 여행의 동기를 촉발하는 장면은 생략된 듯하다.

- 배가 향하는 곳은? 이때 흐르는 음악의 특징은?

→ 배가 향하는 곳은 베니스이다. 배경음악은 하프와 여러 다른 현악기들이 느린 템포로 연주되다가 해안 위로 베니스의 모습 보이자 아센바흐의 놀람을 대변하듯 순간적으로 강렬하고 높은 음의 멜로디가 흐른다.

- 만나는 사람들은? (노인, 리도로 데려가는 곤돌라 뱃사공)

→ 빨간 넥타이를 맨 키가 작고 진하게 화장한 노인사와 그를 리도로 데려가는

파란색 줄무늬 선원복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뱃사공이 소설과 똑같이 등장한다. 두 인물 모두 아센바흐에게 불쾌함과 당혹스러운 인상을 준다.

- 리도의 호텔: 이곳에서 조우한 미소년 타치오의 인상은?

→ 리도의 호텔 이름은 엑셀시오르 호텔이 아닌 베인즈 호텔로 이름이 바뀌었다. 리도에 도착한 뒤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선착장 관리인도 동일하다. 아센바흐에게

- 밤 장면: 친구와의 미에 관한 논쟁의 요지는?

→ 식당에서 타치오를 바라보며 알프레트의 논쟁을 떠올린다. 예술가의 미의 표현은 모방 내지 인위적인 허구에 불과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연적 아름다움인지

- 다음날 타치오에 도취하는 아센바흐?

→ 그는 감각을 완전히 지배하여 정신적 소년의 산봉로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 논쟁하고 있다.

웃을 입은 그의 누이들과 달리 타치오는 역동적이며 개성적인 외견을 지니고 있다. 아센바흐는 그런 타치오를 바라보며 그의 수려한 외모에 매료된 듯하다. 그의 창백한 인생과 포르는 마치 조각처럼 하나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한 인상을 그에게 줬다.

- 호텔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타치오, 작별의 모습?

→ 동그란 테가 있는 하얀 모자를 쓴 타치오는 뒷걸음치며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와 미묘한 표정으로 아센바흐를 바라본다. 객실로 돌아온 아센바흐는 자신이 어린 소년을 좋아하게 됐다는 감정 때문에 수치심과 혼란스러움을 겪게 된다. 베니스를 여행하고 있는 아침에 그는 그에게 미소 짓는 타치오를 보며 텍스트에서처럼 신의 복복을 혼잣말로 읽고 - 베네치아를 떠나려다가(표정) 짐이 잘못 전달되어 리도로 돌아오는 아센바흐의 표정? 작별인사한다.

→ 기차역으로 가는 아센바흐의 표정은 후회와 미련이 담긴 쓸쓸한 음악과 표정이

연출됐다. 그러나 그의 짐이 '코모'라는 잘못된 곳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와 동시에 그의 표정은 속상함과 체념을 가장한 웃음기가 감도는 장난스런 표정이 됐다.

또한 배경음악은 밝은 느낌의 연주로 바뀌었고 베니스의 풍경마저 밝아졌다.

타치오와 재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잔뜩 부풀 얼굴로 그는 베인즈 호텔로 돌아갔다.

- 해변에서의 창작 시도, 눈앞의 타치오와 바다? (말리의 교향곡 3번 4악장!)

→ 그는

목가적인 주택에서 자연과 함께 뛰노는 가족들의 모습과 어우러지는 음악이 흐른다. 이후 타치오가 해변에서 몰래 지켜보며 작곡을 했고, 진흙투성이가 된 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본다. 그는 타치오가 바다를 향해 가는 모습을

- 호텔에서 타치오와의 조우, 피아노 치는 미소년, 창녀와의 비교, 독백

→ 호텔의 피아노에서 타치오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한다. 원작인 소설에서는

없었던 장면으로 음악가로 바뀐 아센바흐와 연관성을 지니게 하는 영화만의 장면이다. 창녀인

에스메랄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타치오와 딸의 순수성과 그를 매료시키는 자연적 아름다움이

- 타치오 가족을 추적하는 아센바흐

→ 그는 이제 타치오에게 도취된 나머지 베니스의 길거리, 교회 등

폴란드인 가족을 스톱킹하기까지 이르렀다. 뒤를 바라보는

타치오의 눈빛은 아센바흐의 추적을 더욱 고취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 저녁 시간 야외 음악밴드, 악단장의 모습, 석류 주스

→ 세속적인 유행가를 부르는 음악 밴드는 대중들을 전염병처럼 웃게 만든다. 완전히 도취됨을 보여준다.

대중들을 비웃듯한 악단장의 붉은 머리카락과 붉은 넥타이, 창백한 외형은 소설의 1장에서 본 이국적 남자와 유사하며 소설의 악단장과 동일. 아센바흐의 석류 주스 또한 붉은 색이며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래시계도 붉은 빛이라는 암시가 계속 해서 등장한다.

- 영국 여행사 직원의 콜레라 경고에도 왜 베네치아에 머물며 타치오 가족들에게

위험 경고? → 베니스에 창궐한 역병은 봉쇄령이 아센바흐가 타치오와 함께할 수 있게되는 기회의 다.

아센바흐는 타치오가 머물게하도록 폴란드인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 혼란한 상태에서 화장 시도, 베네치아 골목길을 돌며 타치오 추적하다 쓰러짐

→ 처음 영화의 초반부에서 아센바흐에게 불쾌함을 줬던 길은화장과 치장을 한 남성처럼

아센바흐도 자신을 화려하게 꾸민다. 자신이 지냈던 원리와 규칙에서 이탈한 아센바흐는 완전한 도취에 빠졌고

육체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그는 미친듯이 웃어대며 쓰러진다. 마치 악단장처럼 말이다. 자신의 업적과 문학가로서의

- 타치오 가족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해변으로 나섬

→ 콜레라로 인해 해변은 텅 비어있다. 타치오를 보기 위해

아센바흐는 해변으로 나왔고 두 소년이 싸우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타치오를 구하려했으나

아센바흐의 몸은 너무나 약해졌고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른다.

- 두 여인, 노래, 쇠약해진 아센바흐? 타치오를 바라보며 죽음을 맞는 예술가?

→ 피를 흘리며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타치오를 바라보는

아센바흐는 마지막 순간 먼 곳을 가리키는 타치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르 아드 환 타치오에게 향하려 한다. 허나 아센바흐의 육체는

너무나도 쇠약해졌고 베니스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베니스라는 아름다운 도시 속에 존재하는 질병과 더러움은

아름다운 병약 무력제한 타치오 한 타치오와 유사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